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개소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센터장 제주대 부만근 총장)가 지난 3월 4일 개소했다.

동센터는 제주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환경역량을 집결하여 구심점을 형성하고 지역 특유의 환경오염현상을 연구 규명,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창원에 생활폐기물 처리 종합단지 준공

경남 창원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종합단지를 건설, 지난 3월 11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시는 창곡동 172-1 4만2천240㎡ 부지에 총사업비 147억 4천만원을 들여 지난 99년 12월부터 27개월간의 공사를 통해 이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종합단지 준공식을 가졌다.

이 단지에는 하루 36t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쓰레기 선별·압축시설과 하루 20t 처리규모의 대형 폐기물 파쇄시설, 유리병 전용 선별시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폐식용유 재활용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인근 소각장 1·2호기에서 발생하는 잉여전력과 스팀을 활용, 연간 3억원 이상의 운영비 절감은 물론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최대한 분리·재활용해 하루 60t 가량의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와 퇴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환경청, 폐기물 관리시스템 도입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 3월 14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폐기물의 발생에서 최종 처리까지 이동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231개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을 본격 시범 가동한다.

관리 대상은 연간 200t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로, 다량배출사업장 128곳, 종합병원 29곳, 이들 업체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위해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지정 폐기물처리업체 74곳 등이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폐기물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확인하는 '폐기물적법처리입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단계 사업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지난해 9월에 개발한 시스템을 시운전하는 것이다.

그간에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와 처리업체, 환경당국간에 '폐기물인계서'를 우편 등으로 주고받아 많은 시간과 행정 비용이 요구됐으나 이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폐기물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업체의 생산성 향상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시운전 결과 현행 폐기물인계서 제도에 비해 행정비용이 87% 절감되고, 업무량도 82%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폐기물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완벽한 폐기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신임회장에 최정일 한양대 교수

한양대학교 지구해양과학대 최정일 교수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동 협의회는 우리나라 생태계보호 및 자연사랑 국민정신을 고양시키고자 설립된 민간단체로서 자연보호현장 제정을 비롯 지난 25년간 국내외 주요 생태자원 종합학술조사, 자연보호활동수기 공모, 환경정화활동 등 자연보호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